

겨울

'부활'과 인생론

부활

명작의 계절

줄거리

고위 귀족 네흘류도프는 젊은 시절 자신이 타락시킨 카튜샤를 법정에서 배심원과 피고인의 관계로 만나게 된다. 카튜샤가 자신의 실수로 감옥에 갇히자 네흘류도프는 그녀의 파멸이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 자아를 찾으려 한다. 말그대로 다시 태어나기를 결심한 것이다. 네흘류도프는 카튜샤를 책임지기 위해 카튜샤에게 청혼하고 영지 문제, 형사 재판, 죄수들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위치에서 변화를 추구한다. 그런 가운데 카튜샤 또한 네흘류도프로 인해 영적인 변화를 겪는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

첫 번째

“부활이라는 책을 읽다보면 종종 상류계급이 기독교를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루스토이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을당하며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묵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과연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른 신앙은 삶과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럼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판정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에서는 심판을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심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의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일 것이다. 심판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우리가 부활을 읽고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같이, 네흘류도프의 옛 것을 버리려 노력하는 모습과 같이 나의 옛 자아는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네흘류도프가 카뉘사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오로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더럽고 부끄럽게 여겨진 것은 그때야 말로 자신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의 허물, 이 모든 것의 거짓됨이 보인 것이 아닐까. 다시 돌아가 말씀에 집중하면 결코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는 자세를 달리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살펴 지적하고 비판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먼저 비판의 잣대를 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비판의 잣대를 대하는 것이다.”

관련 성경구절 #1

공홀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 마태복음 5장 7절 -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서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 마태복음 7장 1~5절 -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 마태복음 22장 36절 -

관련 성경구절 #2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 고린도전서 15장 13절 -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홀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홀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홀을 얻은 자니라
- 베드로전서 2장 10절 -

공홀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홀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홀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 야고보서 2장 13절 -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 요한일서 4장 20절~21절 -

추천 구절

‘인간은 강과 같다. 어디에 있든 물은 똑같고 변함없다. 그러나 어느 강이나 좁고 빨라졌다가 다시 넓어지기도 한다. 잔잔해지고, 깨끗해지고, 차가워지고, 탁해지고, 따뜻해진다. 인간도 그렇다.’ <부활1>

‘인간이란 무슨 행동을 하기 위해선, 자신의 행위가 중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극히 중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기 마련이다.’ <부활1>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아가 상대가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부활2>

‘그가 묻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었다. 다 같은 인간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무슨 권리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금하고, 못살게 굴고, 유형을 보내고, 매질을 하고, 죽이는 것일까? 그러나 그에게 준 해답은 여러 가지 이론뿐이었다.’ <부활2>

‘그자들은 관직에 매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소박한 동정의 마음마저 받아들이지 않는 냉혈한이 되어버렸다. 공무원으로서의 그들에겐 마치 이 돌로 다진 땅에 비가 스며들지 않듯이 인간애의 마음이 깃들지 않는 것이다 … 식물 성장력을 잃어버린 이 흙을 보기란 슬픈 일이다. 이 흙도 축대 위에 보이는 저 흙과 마찬가지로 곡식과 풀과 숲과 나무들을 돌아나게 할 수 있었으리라. 인간도 이와 똑같다.’ <부활2>

부활

명작의 계절

사랑으로 살아나는 정의

정다운

'부활'에서 네홀류도프라는 인상적인 인물을 만날 수 있다. 네홀류도프는 카튜사라는 한 처녀의 삶을 망치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카튜사와 재회하면서부터 삶이 바뀌는 인물이다. 카튜사도 마찬가지로 네홀류도프를 만나고 삶에 서서히 변화가 찾아온다. 카튜사는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가진 채 '난 이 방법 말고는 살 수 없어', '어쨌든 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오기로 살아내다가 네홀류도프를 만나고 이전의 삶을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찾아가게 된다.

네홀류도프가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장면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화가 날 것이다. 그때의 네홀류도프는 자신의 욕구 채우는 것만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에고'(자아)에 광적으로 빠져있었다.

'그 당시의 그는 자신의 정신적 존재를 참된 '자아' 라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건강하고 씩씩한 동물적 '자아' 를 자기 실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전에 스스로에게 부과했던 모든 도덕적 구속에서 해방된 기쁨을 즐겼 느끼면서 여전히 만성적인 에고이즘의 광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

'네홀류도프의 마음속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자아가 있었다. 하나는 남에게 행복이 되고 자기에게도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복만을 찾는 정신적 자아였고, 다른 하나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전 세계의 행복까지도 능히 희생시킬 수 있는 동물적 자아였다. 동물적 감정이 이제는 그를 완전히 정복하여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의 안에 군림했다.'

'인간 속에 있는 야수성은 흉악한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 야수성이 그대로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 인간은 높은 정신적 차원에서 굽어보고 멸시하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안 하거나 간에 이전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야수성이 걸치레만의 미적이고 시적인 감정의 껍데기를 쓰고 타인의 존경을 요구하게 되면, 인간은 그 야수성을 숭상하여 온통 빠져버려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부활'에서는 네홀류도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에고' 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설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가난하

고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잦고 그들의 자유를 빼으며 그들을 학대한다.

사람은 '에고' 를 넘어 '슈퍼 에고' 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슈퍼 에고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욕심과 자아가 도덕성을 삼켜버려서 '부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

슈퍼 에고는 무엇일까? 슈퍼 에고는 나의 이익과 욕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과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럼 어떤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슈퍼 에고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슈퍼 에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할까?

슈퍼 에고와 관련하여 '부활' 에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율을 따라 살아가야 슈퍼 에고를 가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되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슈퍼 에고가 커지기 무지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여 경청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슈퍼 에고는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일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대하며 사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슈퍼 에고를 가지고 가난한 이웃과 불쌍한 이웃들에게 찾아가 얼마든지 최선의 힘이 닿는 대로 도와야 한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

아가 위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도와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슈퍼 에고의 정신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섬긴 사람에게 섬긴 만큼 똑같은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

또 우리는 궁핍한 사람을 보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대하는지 다 보고 계시며 우리가 약자에게 짓는 죄를 보고 죄를 측량하는 저울에 우리의 죄를 달아보고 계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 안 되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부활' 에서는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학대했다.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런 피해자는 지금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잘 사는 데에서 생각이 그치면 우리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된다. 우리는 온갖 소외와 차별을 당하는 억울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옳은 정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이제야 네홀류도프는 사회와 질서가 존속하고 있는 것은 남을 재판

하고 처벌하는 이들 합법화된 범죄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부패와 타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 돌보며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깨달았다.'

카뎬샤는 억울하고 불쌍한 할머니를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네홀류도 프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청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서로가 힘을 내어 서로를 돌봤다. 그래서 부정부패하고 무정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이라도 온기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덕분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은밀하게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각자 해결되지 않은 자기만의 죄들을 가지고 있으며, 생각과 마음으로 온갖 더러운 죄들을 짓는다. 그런데 이 사회는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인간성과 도덕성으로 판결이 잘 날 때도 있지만 억울한 심판과 벌을 받는 사람도 많고 타당하지 않은데도 잔인한 벌을 주는 사람들도 많다. 이 세상은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도 죄 때문에 쉽게 정의를 버린다.

정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의가 존재하는가? ,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진정한 정의를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지만 '회복적 정의' 는 아주 중요하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처벌에 두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회복이 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입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해서 적대관계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06장 3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또한 정의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 복지가 중요하다.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스가랴 7장 10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27절)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가진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웃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위기 19:15)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 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신명기 15장 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장 2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 17절)

또 우리는 우리의 것 중 일부를 그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내리시는 저주가 내려진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악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따라서 남을 벌하거나 교정할 만한 힘이 자기에게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 감옥과 구치소에서 목격한 저 무서운 사악함도, 그러한 사악함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연한 자신감도 요컨대 그들 자신이 악인이면서 악을 교정하려는 따위의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원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죄 많은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을 교정하려 들고,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네홀류도프에게는 자기가 목격한 이러한 공포가 어디에서 나오며, 또 그것을 근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백해졌다. 지금까지 그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던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준 말에 있었다. 곧 누구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며, 따라서 사람을 처벌하거나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므로, 항상 모든 사람을 몇 번이고 한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이 한 가지에 있었다.' - '네홀류도프는 타오르는 램프 불빛에 눈을 박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생활의 온갖 추악함을 생각해 보고, 이와 같은 계율로 양육된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보았다.

그는 이 계율을 실행하기만 하면 인간으로서 바라고 기대하는 최고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확신했다.'

"네홀류도프는 생각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라느니, 생명은 우리의 향락을 위해서 주어졌느니 하는 어리석은 확신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졌

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의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진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만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나머지 것만을 찾고 있으니 발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의 영혼이 죄와 우리의 자아로 더럽혀지면 부활에 나온 네홀류도프의 잘못된 행동과 에고이즘에 빠진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므로 결국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사랑과 존중과 도덕에 근거한 사회의 올바른 법체계를 지켜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계명 첫 번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 이 두 계명이 우리의 사회와 나라를 살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식이지 않고 베푸는 사랑의 원동력이 된다.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이뤄질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서로 서로 옆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존중과 사랑에서부터 피어나는 정의를 이룰 수 있다.

드림이 학교에서도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으로 언제나 달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

는 삶을 배우고 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소외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품어 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돕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도록 배운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지 배우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부딪히고 생활하며 직접 몸으로 배우고 훈련받는다. 공동체 친구들과 함께 동역하며, 힘을 나누고, 달란트를 나누고 성공을 쟁취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섬김을 더욱 많이 베풀기 위한 삶을 살도록 배우고 있다. 난 이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을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모두가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전 세계의 청소년들과 어린 아이들이 드리미학교와 같은 교육을 받고 그대로 세상으로 나간다면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덕이 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럼 세상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아 주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 사랑에 근거한 정의를 실현하기 좋아질 것이다.

슈퍼 에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노력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영양분이 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2가지는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40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욕망이 욕심이 되는 순간과 우리의 부활의 시간

이혜민

인간은 끊임없이 욕구를 품고 살아간다. 멀쩡한 듯 보이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는 숨기기도 하고 절제하며 본능과 싸움을 이어나간다. 욕망이 욕심이 되는 순간. 하고 싶은 걸 모두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원하는 걸 모두 이뤄내면 살 수 없다. 본인에게 충실하려 하지만 나만 알고 나만 중요한 것은 예고이즘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약이 너무 많은 듯 삶이 각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진정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평범’이라는 것. 치열하게 싸워내서 얻어지는 ‘평범’

무엇이 당신을 살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을 숨 쉬게 하나요. 무엇이 당신을 이끄는가 말입니다.

‘네홀류도프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으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영혼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변화로 그는 그녀와 결합되었을 뿐 아니라 이 변화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과도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결합은 그를 기쁨과 흥분된 감격으로 이끌어주었다.

육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필요 이상의 것을 눈과 귀, 그리고 몸은 원한다. 먹는 것과 보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두. 어디까지가 나를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성취하며 삽니다. 만족하며 무엇이든 합리화가 되곤 합니다.

저는 다만 그녀를 구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 여자는 우선 아무 죄도 없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저는 그 점에서도 책임이 있거나 그 여자의 운명 전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뭣이든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뎬샤를 위해 헌신한 네홀류도프는 행동은 과연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녀를 위한 마음과 본인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희생’을 이용한 것이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해 한다는 일도 나를 위해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라는 개념은 과연 희생과 부합할까 의문이 듭니다. 타

인을 위해 순전히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이며 사랑인 걸까요.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봉사이고 사랑일 수는 있는 걸까요. 욕구(欲求, need) 또는 욕망(欲望, desire)은 생물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감정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느낌이 강합니다. 시민 윤리에서는 적절한 정도의 욕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욕망은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며, 자신 또한 망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면 만족감과 쾌감을 느끼고, 충족되지 못하면 고통과 불만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누리려는 것, 부족함을 채우려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욕구를 얼마나 지혜롭게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외에도 수많은 욕구는 늘 함께했습니다. 욕구가 욕심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갈등합니다. 매일 매 순간 고민하고 넘어집니다. 그건 내가 나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뉈샤를 떠나보낸 네홀류도프가 다시 돌아와 그녀를 위해, 민중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사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이 책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내 것이 잘 되어야 하며 나의 즐거움과 쾌락이 우선인 나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 '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에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부활은

이뤄집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고 자잘한 습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욕구는 욕심이 되기 전에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지상에 신의 왕국이 건설되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최대의 행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가리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나머지 것만 찾고 있으니 발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의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의를.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욕망에서 자유하고 허락하신 행복의 최대치를 누리며 그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죄 많은 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고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선물이다. 부활은.

갱생: 인간의 부활?

박예담

‘부활’은 지금까지의 명작들에 비해 내 인생에서 받아들일 요소가 적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카뮈의 도덕적 타락이나, 당시 러시아의 시대상이 드러나는 네홀류도프의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읽으면 읽을 수록 카뮈와 네홀류도프 사이의 사랑과 갈등 안에 숨어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갈등과 자아 문제 등이 심도있게, 그리고 매우 깊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었다.

먼저 단면적으로 드러나는 카뮈와 네홀류도프의 사랑을 넘어 네홀류도프의 영적 성장을 보자면 원래 네홀류도프는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초자아를 추구하는 선하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지만 동물적 자아를 이기지 못해 도덕적 타락을 하게 된다. 본디 분별력 있었고 카뮈사라는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던 청년도 동물적 자아에 치우쳐지자, 곧 도덕적인

죄로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네홀류도프도 싸워보였으나, 그 싸움은 너무나도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선한 일이라고 믿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은 악으로 생각했고, 반대로 그가 스스로 악이라고 믿는 일을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네홀류도프는 두 손을 들었으며, 자기 자신 믿기를 단념하고 남을 믿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자기부정이 불쾌했으나, 그 불쾌감도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성과 동물적 자아 간의 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초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을 돕고 자신의 영혼에 깃들어 깨끗이 씻어달라고 빌었으나, 그 소원은 그동안에 벌써 성취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 존재하던 신이 그 의식 가운데 눈을 떴던 것이다. 그는 신을 느꼈다. 그래서 자유와 용기와 삶의 기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한 선의 위력을 느꼈다. (중략) 나쁜 눈물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과 자신의 선행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아 기분 좋다! 정말 좋구나, 이 얼마나 좋은 기분이나 하고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네홀류도프가 카뮈사에게 청혼을 했을 때에도 처음에는 카뮈사에게

의 속죄를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이 또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서라고 생각 되었다. 책에서 직접적으로 사실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네홀류도프의 그 선택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덜고 자신의 구원이 간절해진 이유도 있을 것이라 카튜샤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완전히 타락해서 도덕적 가책과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죄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를 보고 인간은 죄에 친숙함과 동시에 진실로 선하려는 욕구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의 경험과 생각 뿐만 아니라 네홀류도프에게서도 진실된 그의 모습이 보여졌었다. 그러나 번번히 또 죄에 사로잡혀 실패하고 만다. 주홍글자의 딤프스데일 목사와 같이 말이다. 톨스토이의 인생론에서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무엇보다 먼저 추구하는 것일까? 예고이즘, 자아 이익 추구의 모습은 각 인간에게 있어서 스스로 풀어내야 할 숙제이다.

그러나 그녀는 벌써 오래전부터 또다시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끊었고, 교태 부리는 짓도 그만 두었고, 간호 조수로 병원에도 들어갔다.

책에서 결국 카튜샤는 네홀류도프로 인해 부정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를 겪는다. 네홀류도프 또한 카튜샤를 통해 변화를 하고 문제를 깨달은 뒤 카튜샤만을 위해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영지, 죄수, 형사 재판 문제 등 자

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활'의 노력을 한다. 이것이 바로 딤프스데일과의 비교할 수 없는 차이점이라고 느껴졌다.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 간 사랑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책의 초반, 나는 타락한 네홀류도프의 모습을 보고 한 때는 진실되었던 사랑도 이렇게 가볍게 돌아설 수 있는건지 충격만 받았다. 하지만 그런 요소들 뿐 아니라 후반부 시몬손과 네홀류도프를 비교하며 흥미롭게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카튜샤를 동정하고 그녀를 위해 헌신하는 네홀류도프와 카튜샤 자체를 사랑해서 청혼하는 시몬손은 행동은 같지만 그 목적과 이유 등이 매우 달랐다. 우리가 바라는 사랑과 지향해야 할 가치관의 차이를 보고 또 나누면서 사람마다의 생각 차이를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인생의 시작점과도 같은 시기에 읽게 된 부활은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그 중에서도 명심해야 할 점은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같이, 네홀류도프의 옛 것을 버리려 노력하는 모습과 같이 나의 옛 자아는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부활

윤창민

부활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회개란 무엇이며, 바른 신앙, 바른 기독교인에 대해서 생각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바른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전 15장 13절)

부활이라는 책을 읽다보면 종종 상류계급이 기독교를 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톨스토이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위의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며

억울하게 감옥을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 모르는 척 묵인하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과연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른 신앙은 삶과 떨어져 있을 수 있을까? '바른 신앙은 기도를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며 삶을 통해서만 증명해낼 수 있다' 생각한다. 기독교인의 삶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인 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록 더욱 삶에 완벽에 완벽을 기해서 살아내야 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그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증명이 된다’(요한일서 2장 3절~5절)

'모든 행위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사랑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많은 사람들이 네홀류도프의 회개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네홀류도프의 회개는 올바른 회개일까? 진실된 회개일까? 진정한 회개일까? 네홀류도프는 회개 이후 마슬로바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네홀류도프의

사랑이 올바른 사랑의 모습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네홀류도프의 사랑 역시 진실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한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전부 던지는 모습 역시 다른 모습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장 36절)

'만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21절)

네홀류도프가 마슬로바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들이 네홀류도프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생각보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많다는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루 한 끼를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 등등을 알게 되어가며 공허의 감정을 느낀다. 지금까지 네홀류도프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네홀류도프 역시 세상을 보면서 무수히 많이 이런 모습을 봤을 것이다. 하지만 회개 전에는 단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일까?

회개라는 것은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이기 위한 끊임없는 사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던

모습을 계속해서 보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흠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 공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흠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톨스토이가 이 책의 제목을 부활이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기독교인의 새로운 부활, 예수그리스도의 부활, 겨울의 부활을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겨울 등이 모두 떨어져서 혼자서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하

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올바른 사람인가

박초연

“그가 묻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었다. 다 같은 인간이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또 무슨 권리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금하고, 못살게 굴고, 유형을 보내고, 매질을 하고, 죽이는 것일까? 그러나 그에게 준 해답은 여러 가지 이론뿐이었다.” - 부활 2부 중 183p -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한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보면 그 행동이 잘못됐다고 비판하지만 그런 비판을 하는 우리조차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정말 쉽게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본문 내용처럼 다 같은 인간끼리 감금하고, 못살게 굴고, 유형을 보내고, 매질하고, 죽이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

는 서로를 평가하고 심판하고 있었던 것일까.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고 사람이 사람을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고 있는 것일까. 세상에서는 누가 더 착하게 살았고 나쁘게 살았는지, 누가 더 똑똑하고 바보 같은지, 누가 더 예쁘고 못생겼는지를 구분한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는 사실상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자신과 똑같은 존재인 죄인을 판단하고 벌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럼 심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판정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에서는 ‘판을 ‘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정을 내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심판이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오는 의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일 것이다. 심판한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더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다.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어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7절)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하며 항상 자신이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어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이웃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게 되어 불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심판하는 세상에 살면서 심판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서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 줄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5절)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비난을 위한 비판, 근거도 없는 허황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서 우리는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삶 속에는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허무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와 같은 상황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더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네홀류도프는 낮익은 거리를 지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미시와 나눈 대화에서 얻은 괴로운 감정은 그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만약 그런 식의 표현이 허용된다면, 그는 그녀에 대해서 공명정대했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속박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결혼 신청 같은 것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는 자신을 그녀와 결부시키고 있었으며 그녀에게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고 느꼈다. 그런데 그는 오늘 그녀하고는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미시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다고 느끼면서, 그는 마음속으로 되풀이 했다. ‘모든 것이 더럽고 부끄럽다.’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이렇게 되풀이했다.” - 부활 1부 중 207p -

네홀류도프가 카튜사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오로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더럽고 부끄럽게 여겨진 것은 그때야말로 자신을 돌아보니 다른 사람들의 허물, 이 모든 것의 거짓됨이 보인 것이 아닐까. 다시 돌아가 말씀에 집중해보면 결코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는 자

세를 달리하라는 것이다.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살펴 지적하고 비판하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에게 먼저 비판의 잣대를 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비판의 잣대를 대라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자세로 살피며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취하며 위선적, 자기 과시적인 비판이 아닌 서로에게 권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었을 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비판자로 남게 될 것이다.